

항미원조에 달려나가던 15살 어린시절을 되돌아보며



젊은 시절의 김봉석

올해 나이 90인 나는 현재 대련에서 두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다.

지난 9월 3일,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 열병식을 시청하면서 나는 격동된 심정을 견딜 수 없었다. 의기분발하고 투지가 앙양된 룩·해·공·로 케트군 장병들, 현대화한 무기장비들과 힘차게 나뭇기는 국기 아래 열병식 대오를 사열하는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

감격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열병식 장면을 보노라니 나는 저도 모르게 1950년 10월 15살 어린 나이에 항미원조 전선으로 달려나가던 지난 날이 머리속에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나는 1935년 1월 조선 함경북도 길

주군에서 태어나 1944년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 화룡현 투도구(현재의 화룡시 투도진) 명성촌에 이주했다. 내가 중학교 3학년에 다니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긴급 사생대회를 열고 미군의 조선 침략으로 전쟁의 불길이 우리 나라 변경에까지 들이닥친 형세를 설명하면서 참군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신속히 신청하라고 호소했다.

그때 내 나이 15세, 한창 풍채와 재질이 피어나고 서생의 기개를 떨칠 때라 집식구들과 일반반구도 없이 참군 신청을 했다. 참군하던 날 아침이 돼서야 부모님에게 오늘 항미원조 전방으로 떠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락루만 하시고 애꿎은 담배만 피우시던 아버지는 "가거라. 전쟁의 불길이 발등에 떨어졌는데 사나이

로 태어났으니 먼저 나라부터 구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심양에서 총동원대회를 한 후 우리는 압록강을 건너 옹근 사흘 밤 자동차를 달려 조선 강원도 서해안에 도착했다. 38선과 그리 멀지 않은 해안 선인자라 낮이면 적군의 비행기가 파리떼처럼 공습하고 대포소리가 쉴 새 없었다.

그때 나는 포병부대 지휘부에서 통역과 지방 소통 사업을 하다 보니 총가목을 부여잡고 적들과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 적기의 공습에 목숨을 잃는 전우들의 비참한 장면을 자주 보고 들었다.

어느 날 아침, 통신원 왕씨가 밥 타러 간다고 급방 문을 나섰는데 하늘에서 웅~하는 비행기 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폭탄이 바로 왕씨 곁에 떨어지면서 왕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한쪽 다리가 멍청 떨어져 나갔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져버렸다. 나와 함께 짬만 있으면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 조선족인 나한테서 조선말을 배우고 싶다며 열성을 보이던 친구, 나보다 한살 더 먹었다고 식사할 때마다 늘 자기 몫을 갈라서 나의 밥그릇에 담아주던 전우... 그의 시체를 묻은 후 나는 밤마다 그와 함께 고락을 나누던 지난날이 머리속에 떠오르며 눈물이 앞을 가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후 며칠 안되어 부대 수장의 운전병인 류쥬도 수장이 차에서 내린 후 쪼프차를 나무 밑에 대피시키고 있다가 갑작스런 적군의 공습에 차가 박살나고 류쥬도 즉사했다.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나는 전쟁의 참혹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며 정의적인 전쟁의 승리는 무수한 선렬들의 피와 목숨으로 바꾸어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맡겨진 사업임무를 충실히 완성했다.

가렬처절한 전쟁 환경과 철같은 지원군의 규율은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나는 부대에서 입당했고 3등급을 기입받았다. 1953년 10월에 귀국한 후 북경군관학원에서 3년간의 학습을 마치고 려군 모부대에 배치받아 판정위로 사업하다가 정년퇴직했다.

돌이켜 보면 근 50년의 군인생활은 '동지'를 깨고 바깥세상에 나와 넓디넓은 세상을 체험한 50년이었고 전쟁의 시련과 철같은 규율로 자신을 련마한 50년이었고 당과 나라의 사업을 위해 헌신한 50년이었던 것이다.

심장의 고동이 멈출 때까지 당과 나라를 위한 나의 초심은 드림없을 것이다!
/ 대련부대간부후양소 김봉석 구술, 리삼민 정리



연변대학부속병원

'걱정 없는 병실' 돌봄봉사 새로운 모식 도입

"예전에는 부모님이 입원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항상 걱정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간호사들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주니 우리 자식들도 시름 놓고 각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리로인이 '걱정 없는 병실'에서 결장수술을 마친 후 그 딸이 감격에 겨워 한 말이다.

2025년 4월, 연변대학부속병원(이하 '연변병원') 위장외과와 화상성형외과 간호부문에 서는 선도적으로 '걱정 없는 병실' 봉사를 실시하여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었고 간호봉사의 수준 제고와 효율 제고를 실현하여 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호평을 받았다.

◆ '걱정 없는 병실': 전문가가 전문적 일을 하도록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환자의 간병 문제는 가정과 사회의 관심이 초점으로 되고 있다. 가족이 동반하는 기존의 돌봄 방식은 인력을 많이 소모할 뿐만 아니라 돌봄부에서 전문적이지 못해 회복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국가의 무동반 돌봄봉사 시범사업 추진 정신에 부응하여 연변병원은 '걱정 없는 병실' 돌봄봉사의 새로운 모식을 전

문간호사들이 환자의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전문돌봄팀을 지도하고 있다. 이는 전문돌봄팀에 돌봄 직책을 잘 리행하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진정으로 마음 편히 돌봄봉사를 받도록 했다.

'걱정 없는 병실'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1대1 혹은 1대 다의 정밀 돌봄봉사를 누릴 수 있다. 아침 세면, 음식 섭취 협조, 기를 많이 완화시킨다. 병실이 몸 뒤집기, 등 두드리기부터 병세 관찰, 약 사용 지도, 심리소통에 이르기까지 전문돌봄 인원들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긴다. 간호장 리해월은 "우리는 단순히 가족 돌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평가를 통해 매개 환자를 위한 맞춤형 돌봄 방안을 작성하여 의료 안전과 인문적인 배려를 동시에 들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이 입원하면 온 가족이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되었다.

◆ 가족 호평: '마음 놓지 못함'에서 '안심하고 말끔'으로

환자 장로인의 아들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다리 불편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매일 청가를 맡고 어머니를 돌보았는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다."고 하면서 "현재 병원에서 도입한 '걱정 없는 병실' 봉사는 환자의 수요에 따라 가족들은 잠깐 동안에 겨워 한 말이다."

환자 장로인의 아들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다리 불편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매일 청가를 맡고 어머니를 돌보았는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다."고 하면서 "현재 병원에서 도입한 '걱정 없는 병실' 봉사는 환자의 수요에 따라 가족들은 잠깐 동안에 겨워 한 말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목소리는 '걱정 없는 병실'에서 자주 들려온다.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봉사가 제공된 이래 연변병원은 루계로 80-0여명에게 돌봄봉사를 제공했다. 대신 가족 성원이 돌봐주는 상황은 70% 이상으로 하락,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량률이 뚜렷이 낮아졌다.

◆ 질 향상과 효율 제고: 돌봄봉사 '정밀, 정확, 따뜻함'으로

'걱정 없는 병실'은 봉사 모식의 혁신일 뿐만 아니라 간호 내용의 승격이기도 하다. 첫째, 돌봄팀은 24시간 환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가족 구성원들의 직장 과 돌봄 사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준다. 둘째, 수술후 재활치료에 대해 돌봄팀을 리해하기 쉬운 언어로 요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재활훈련을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로 세분화하여 환자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돌봄봉사를 제공한다. 셋째, 따스하고 가정적이며 아늑한 입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엄숙하고 억압된 전통적인 병원 분위기를 많이 완화시킨다. 병실이 오히려 집에서의 자유로움과 따스함으로 가득차 신뢰와 리해를 강화하고 조화로운 의환관계를 구축한다.

연변병원 관련 책임자는 "우리는 '걱정 없는 병실'이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한줄기 따스함을 그들에게 전해줄길 바란다."며 "앞으로 병원은 지속적으로 '걱정 없는 병실' 봉사가 더욱 많은 병실 구역에 포괄하도록 추진하여 량질의 돌봄봉사가 더욱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며 전문성과 온정성으로 세시대 의료봉사의 따스한 답안지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 리전기자 / 사진 연변대학 부속병원



길림성 결혼·출산·육아·돌봄 휴가정책

여러분은 휴가정책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가?

아래는 길림성의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돌봄휴가 관련 규정으로 정확히 알고 활용하기 바란다.

★ 결혼휴가: 15 일

〈길림성인구및계획출산조례〉 제 42 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결혼등록 절차를 밟은 중업원은 15 일간의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배

동출산휴가, 陪产假)

출산휴가 일수는 98 일 + 지역별 장려일수이다.

출산휴가: 158 일—365 일
남성 출산휴가: 25 일
〈길림성인구및계획출산조례〉에 따르면 국가의 98 일 출산휴가 기초 위에서 정책에 따라 출산한 여성중업원의 출산휴가를 180 일로 늘리고 남성의 출산휴가를 15 일에서 25 일로 늘렸다.

여성중업원은 본인의 신청과 단위의 동의를 받으면 출산휴가를 1 년까

지 연장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연장 기간 급여는 원래 금액의 75%로 지급되며 급여 조정, 등급 승진, 근무년한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육아휴가: 부부 쌍방 각각 20 일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 쌍방은 매년 각각 20 일의 육아휴가를 누릴 수 있다.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를 진일보 보완하고 실행할 데 관한 길림성의 실시의견〉에 따르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각각 총 20 일의 육아휴가를 누릴 수 있다.

★ 돌봄휴가

외동자녀: 15 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를 진일보 보완하고 실행할 데 관한 길림성의 실시의견〉에 따르면 외동자녀의 부모가 만 60세가 된 후 병에 걸려 입원한 경우 외동자녀는 매년 루적 15 일의 돌봄휴가를 누릴 수 있다.

/ 인민넷—조문판

최근 연길시민속예술단에서는 왕속·민풍'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위문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연변주당위 선전부와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

국에서 주최하고 연길시민속예술단에서 연출을 맡았다. 지역 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찾아가는 문화 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연변지역의 우수한 민간문화단체들을 조직해 직접 농촌과 사회구역, 관광지에서 진입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통 예술을 선사하고 실제적인 문화 혜택을 마련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무용 〈연변인민 모주석을 열애하네〉의 한 장면

공연은 민족 특색이 짙은 다양한 종목들을 선보였는데 〈연변인민 모주석을 열애하네〉, 〈물동이춤〉, 〈부채춤〉, 〈지계춤〉 등 화려한 무용과 〈살기 좋은 내 고향〉, 〈잊을 수 없는 그날〉, 〈장고야 울려라〉 등 흥겨운 노래로 주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자아냈다.

연변주당위 선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민속예술공연을 조직해 문화를 통한 주민들의 행복감 향상과 중화민족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살손을 대겠다."고 피로했다.

/ 허철특약기자



연변주당위 선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민속예술공연을 조직해 문화를 통한 주민들의 행복감 향상과 중화민족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살손을 대겠다."고 피로했다.